

“도교육청, 정책기획 중심 조직 재정비해야”

조직개편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서

2국 → 3국 체제 전환… 정책국 신설 ‘눈길’

공보·홍보 업무 대변인실 교육감 직속으로

부교육감 직속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설치

전북교육청을 현재의 2국 체제에서 정책국 신설을 통해 3국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서거석 교육감의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기획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병주)은 24일 ‘전북도교육청 조직진단 및 개편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용역 결과물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의 의뢰로 지난 6월부터 5개월 간 조직개편 용역을 수행한 영남대 산학협력단은 분청 기구를 2국 13관과 52담당에서 3국 18관·단·과 64담당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1국 5관·과 12담당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정책국 신설을 통한 정책기능 강화가 눈길을 끈다.

산학협력단은 도교육청이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 분청 국·과 수가 적는데도 직원 수가 많은 점, 새로운 교육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정책국 신설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공보와 홍보 업무를 하는 대변인실을 교육감 직속으로 두고 미래교육 기반을 다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부교육감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지원청 내에 학교 업무 지원 담당을 신설하자는 제안도 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오전에는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과장급 이상 간부 직속 기관장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에는 전 북도의회 교육위원장실에서 교육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 차례 진행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안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관련 조례를 도의회에 상정해 이후, 조례 통과와 규칙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서 교육감은 “이번 조직개편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개편이 잘 마무리되면 정책 현안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4일 전북도교육청 조직진단 및 개편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외부통제시스템 강화… 전북교육 투명성 확보”

도교육청, 시민감사관 협의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4일 창조미래(별관) 회의실에서 제6기 시민감사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제6기 시민감사관들의 첫 회의로, 지난 9월 위촉된 변호사, 건축사, 전직 의원 등 외부전문가 10명과 감사담당공무원 3명 등 총 13

명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시민감사관제도의 주요 내용 안내 △전북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설명 △대표시민감사관 선출 △하반기 시민감사관 실지감사 대상 및 일정에 관한 사항 등이 다뤄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수요자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외부통제 시스템 강화로 전북교육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주요 사업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와 조사,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위해 공정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자 한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졸업생·지역 청년 마음케어프로그램 운영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이상행)는 지난 22일 전주시 청년센터 청년이음전주에서 졸업생과 지역 청년 15명을 대상으로 마음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24일 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가장된 취업난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통합상담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졸업생과 지역 청년의 취업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과 자기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집단상담을 통해 진로·취업·대인관계 등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 등 감정을 탐색하고, 미술치료와 색채 활동으로 에너지 충전 및 부정적 감정을 해소해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상행 센터장은 “미취업 졸업생과 지역 청년들이 취업 스트레스는 극복하고, 적극적인 취업 준비를 위해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아름다운교육상 학교부분 ‘최우수’

전주아름유치원 “유아·교원·학부모 모두가 노력한 결과”

전주아름유치원(원장 강혜정)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3회 아름다운교육상 시상식’에서 학교부분 최우수상인 전라북도교육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상은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교육부·환경부·시도교육청에서 후원하는 상으로 학교가 보다 더 아름답고 즐거운 배움터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전국의 우수사례들을 발굴해 일반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개원한 전주아름유치원은 ‘유아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경영관을 바탕으로 줄곧 ‘서로 이해하고 나누며 함께하는 공감교육’을 펼쳐왔다. 특히 미래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유아·놀이중심 교

육과정의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원 간 지속적인 소통과 나눔으로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강혜정 원장은 “아름다운교육상 수상은 유아, 교원, 학부모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높아진 자리에 올랐다는 함께 넓어짐을 향하는 교육을 실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유아들의 행복한 교육을 지원해 준 교원들께 감사하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이끌어 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청년 취업 애로사항 해소… 원광대, 메타버스 온라인 취업박람회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 일환… 28일까지 개최

원광대학교는 전북지역 기업의 구인과 청년 취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WK100 메타버스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일환으로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강기안전공단 등 공기업과 30개의 WK100 강소기업을 홍보해 구직자 관심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오는 27일과 28일에는 구직자 누구나 박람회 홈페이지(wkjobfair.c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활용 박람회를 운영해 단순 취업박

람회 성격에 그치지 않고 MZ세대와 전북지역 강소기업 간에 소통 경로의 다변화를 꾀한다.

메타버스 플랫폼(ZEP) 박람회는 가상현실 공간에서 자신의 캐리커를 생성해 기업 인사담당자와 채용 상담을 할 수 있다.

또 기업 홍보영상과 채용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을러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 및 취업상담,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원광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지역의 우수기업과 지역 청년 간 일자리 매칭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며 “코로나19로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메타버스 취업박람회를 통해 우수한 기업과 훌륭한 인재들이 만나 좋은 인연이 맺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지역 내 월드클래스300, 글로벌강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갈소기업, 전북도스타기업,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등 100개 기업을 WK100 강소기업으로 선발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원광대는 상시 채용 동향을 파악해 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인력양성, 매칭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지역기업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시스



전주교대, 농촌봉사활동 펼쳐

전주교육대학교 재학생 120명은 지난 22일 생강 수확 등 농촌 가을걷이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봉사활동은 초등교과와 정윤경 교수의 지도로 정읍 칠보면 한밭음공 동체를 방문해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특히 올해는 인력 부족으로 수확을 앞둔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 대학에서 여러 차례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한편 전주교대는 어려운 농가에 일손을 함께 보태며, 지역과 소통하면서 상생하는 대학을 만들어가고 있다.

정윤경 지도교수는 “우리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공감하는 보람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박병춘 총장은 “바쁜 시기에 농가의 일손을 돕는 것뿐 아니라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동참해 대학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면서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지역과 함께 호흡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체육교사 심판자격 연수

넷볼·풋살·피구 등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만수)은 2022년 체육교사 심판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체육교사와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를 대상으로 진행. 지난 15~16일은 전주서신중학교에서 넷볼 심판연수, 22~23일은 우석대학교에서 풋살 심판연수가 이뤄졌다. 오는 30일에는 전주동중학교에서 피구 심판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는 각 종목별 특징 및 경기규칙, 경기 운영 방법, 심판법 등의 이론교육과 심판 신호, 심판 위치 선정, 심판 판정 등의 실기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심판 자격 연수에 참가한 체육교사 및 스포츠강사는 추후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심판요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만수 교육장은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바른 인성에 애써준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스포츠 활동이 승패 위주의 경쟁이 아닌 함께 협력하며 즐기는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이 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군산교육문화회관, 고3 수험생 무료 수영교실… 내달 21일부터

군산교육문화회관(관장 양서연)은 11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6주 동안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수영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생활’이라는 주제의 이 강습은 진학과 취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풀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희망자는 재하 중인 학교를 통해 작성한 신청서를 11월 3일까지 군산교육문화회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강생들은 수준별 수영 영법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교육(CPR)과 생존수영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강습비는 무료이며, 모집인원은 90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교육문화회관 총무과(450-3215)로 문의하면 된다.

양서연 관장은 “새로운 출발을 앞둔 고3 학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체력증진과 활기찬 학교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는 지난 22일 서학예술마을도서관 앞뜰에서 ‘꿈꾸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전주부설초, 꿈꾸는 작은 음악회 개최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교장 이영환)는 지난 22일 서학예술마을도서관 앞뜰에서 꿈꾸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음악회는 학생들의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문화를 즐기고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부설초 학생들은 1시간 남짓의 색소폰 3중주, 색소폰 독주, 현악 5중주, 독창 중창으로 구성된 공연을 통해 힐링 메시지를 전하고 꿈과 끼를 발전시켰다.

이에 작은 음악회에 참석한 관객들은 풍성하게 채워진 프로그램과 아름다운 선율에 박수로 답했다.

전주부설초 학부모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한 번 더 성장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전했다.

이영환 교장은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과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는 행사로 의미가 크다”면서 “다음에 더 좋은 공연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국립군산대학교초과학축제 개최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전북지역 초·중·고·대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초과학축제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국립군산대학교에서는 2022년 UN이 지정한 세계 기초과학의 해를 기념하여, 기초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박연하게 알고 있는 오해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기초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자연과학대학의 수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과에서 행사를 준비했으며, 다양한 학과 체험, 최첨단 실험실습 견학, 국내 기초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공개 강연도 준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